

■ 특특뉴스

전남 농축협 13곳 종합평가 '최우수'

농협전남본부는 농협중앙회의 전국 1,113개 농축협 대상 '2022년도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상에 관내 13개 농축협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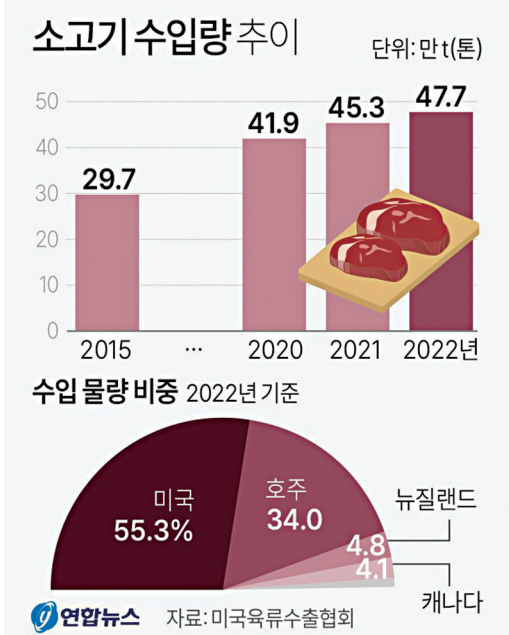
전국 1위에 오른 전남 관내 농·축협은 고흥 흥양농협, 광양 광양농협, 나주 봉황농협, 담양 봉산농협, 신안 압해농협, 장흥 관산농협, 영암 영암농협, 영암 군서농협, 영암 삼호농협, 영암 서영암농협, 화순 이양정풍농협, 광주축산농협, 영광축산농협이다.

13개 사무소에는 시상금 300만원과 2,0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 1대, 직원 특별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13개 농·축협 외에도 전남 관내 13개 농·축협이 우수 농·축협에 선정돼 전남농협의 위상을 드높였다.

/우성진 기자

■ 그래픽 경제



작년 소고기 수입 48만t 역대 최대

미국육류수출협회 주최 '미국 육류 시장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량은 47만7,000t(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고기 수입량을 보면 2020년 41만9,000t, 2021년 45만3,000t, 지난해 47만7,000t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힘내리! 중소기업

(주)유투

데스크톱·모니터 생산·조달업체
소비전력 최대 30% 시스템 절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익 담당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품질·환경·사회적 책임 등 무엇 하나 빠짐없는 발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훈풍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주)유투(대표이사 강철원)다.

지난 2009년 창립한 유투는 IT관련 제품군, 빌트인 가전제품군, 시스템 에어컨 등을 유통해 왔으며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생산·조달 업체로 성장했다.

유투의 IT기기는 환경표지·녹색기술제품 인증 등 저탄소·친환경·에너지절약 부분에서 앞선 것이 특징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게이트 회로를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의 소비전력 절감 장치·방법’ 특허를 개발, 제품에 적용해 소비 전력을 최대 30% 절감했다.

포장에서도 스티로폼을 최대한 줄이고자 공기 주입 포장재를 최대한 이용한다.

품질부문에서는 주요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사용해 신뢰·안정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주)유투 강철원 대표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도 자체생산이 가능한 설비 100평, 자재창고 200평 규모 공장을 조성,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다 14년간 유통업체 지사장을 지낸 강철원 대표의 노하우가 더해져 현재 확보된 판매점·관공서 등 거래처는 전국 2,5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매출은 제조업에 뛰어든 지난 2016년 약 42억에서 매년 30~40% 신장했고 2022년은 최고 실적인 11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유투는 고용창출·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고용을 위해 평등산업 단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신규 제조 공장(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신축하고 현재는 중증 장애인 15명을 고용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 탄력근무제, 육아수당 등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은 물론, 자격증 수당, 내일채움공제 참여 독려, 여가활동 지원과 같은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등 수

많은 기업수상경력이 이를 증명하며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에 선정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되기도 했다.

강철원 대표는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지역 기업인 만큼 주변 이웃들과 상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품질 향상에 중점을 뒀던 방향성을 지켜나가고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와 기술력 등을 보유한 지역 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GGM, 행복동행 실천 ‘상생봉사단’ 출범

직원 300명 자발적 참여

소외계층 지원·환경보호

광주글로벌보타스(이하 GGM)가 지역 사회와의 행복한 동행 실천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나선다.

GGM은 최근 본사 상생회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GGM 상생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생봉사단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직원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애인 단체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고아원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수해 및 가뭄 등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상생봉사단은 내달 봄맞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5월 사랑 나눔 헌혈 행사, 여름 장마철 수해복구 지원 사업, 9월 하반기 환경보호 활동, 11월 겨울철 소외계층 연탄 지원, 12월 소외계층 김장 나눔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상생봉사단 단장을 맡은 오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글로벌보타스의 상생봉사단 출범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소외계층과의 행복한 동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상생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해 소외계층 봉사 지원, 환경보호 활동, 수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ONE store